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지사 후보들, 오늘 공식 선거운동 돌입

김관영, 전라감영서 출정... "민생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조배숙, 전주역광장서 출정식 열고 지지자 결집 나서

6.1지방선거에 나선 전북도지사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9일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오전 11시 전라감영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방선거 압승을 다짐한다.

앞서 김 후보는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 김관영은 오늘부터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공식 선거운동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장에서 도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찾는데 집중하겠다"면서 "도지사가 되어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현장 우선의 실용정치·생활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조배숙

이어 "이번 지방 선거는 현장에서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민생 선거"라며 "전북에서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서 14개 시·군에 출마한 모든 민주당 후보들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후보는 "무너지는 전북경제를 살려내라, 유능하고 강한 아당으로 혁신해라, 전북의 자존심과 도민의 자

부심을 키워내라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충실히 따르겠다"면서 "저는 전북 전체를 바꿔내는 대혁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려 한다.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도 공식선거 개시일인 19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역광장(첫마중길)에서 출정식을 열어 지지자 결집에 나선다.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인 정운천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지역 후보자 및 당원, 지지자, 주민 등이 참석한다.

전북도민 성공시대를 열자 슬로건을 기치로 열리는 출정식은 선대위 구성 경과보고, 주요당직자 소개, 정운천 국회의원 지원유세,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등 지역출마자 찬조유세, 후보자 연설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 후보는 후보자 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전북의 낙후와 소외의 이유는 수십년간 계속된 일당 독점 정치의 폐해"라면서 "이제는 전북도민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전북도민 성공시대를 열자"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유호성 기자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왼쪽 위) 일행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을 만나 농생명 분야 전북지역 공약사업의 적기 추진과 국가예산 사업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尹정부 출범 발맞춰 국비 확보 '정조준'

전북도, 부처 예산안에 지역 몫 국비 반영 '매진'
조봉업 행정부지사, 농식품부 찾아 농생명 분야 지역 공약사업 추진·국가예산 반영 협조 요청
부처 미온 사업 보완 이달 말까지 '화력 집중'

전북도가 새정부 출범에 발맞춰 부처단계 국가예산 최대 반영을 위한 쟁점을 이어가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각 부처 장·차관이 속속 임명됨에 따라 차관 및 기조실장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공약사업을 비롯한 내년도 주요 국가예산 확보에 가속을 더하고 있다.

지난 4월 부처 실국장 대상으로 전북국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친 데 이어, 부처예산안 편성이 막바지에 이룸에 따라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방점을 찍기 위해서다.

이에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18일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을 만나 농생명 분야 전북지역 공약사업의 적기 추진과 함께,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중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은 새만금 농생명 융지(4공구, 66ha)에 임대형 주택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농산물 산지유통기반을 구축하며 청년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임을 설명하며, 새만금에 특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새만금 농생명융지의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농식품부 내에 새만금 농생명융지 전담부서(과단위) 신설을 건의했다.

아울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확장·고도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식품산업 분야의 국가적 경쟁력 제고와 혁신적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의 확고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농업의 반도체인 중자산업의 혁신적인 육성을 위한 '중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제공항 부지의 신속한 관리전환과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타당성 연구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도에서는 김제공항 부지의 관리전환을 위해 각 부처와 협의 진행 중이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관리전환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농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이 전북 익산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가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5월 말 공모 선정 예정인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 전북이 사회적 농장 최다 선정 지역이며, 사회적 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원센터 구축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전북 김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건의했다.

한편, 도는 부처 미온·부정적 사업 위주로 설득 논리를 보완해 부처 예산안이 기체부로 제출되는 5월 말까지 새정부 대상으로 화력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유호성 기자

교육감 후보들, 13일간 유세전

김윤태, 꽃밭정이 사거리서 학생행복캠프 출정식
서거석, 전북대 구정문 앞에서 출정식 열고 세몰이
천호성, 전주서 집중 유세 후 부안 거리유세 나서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전북교육감 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김윤태·서거석·천호성 후보(가나다 순)는 19일 각각 출정식을 갖고, 13일 간의 유세전에 돌입하게 된다.

먼저, 김윤태 후보는 오전 11시 전주



김윤태



서거석



천호성

평화농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학생행

복캠프 출정식을 갖는다.

다음으로 서거석 후보는 오전 10시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전주 집중 유세에 나선다. 이후 오후 1시 익산 북부시장 사거리, 오후 5시 30분 군산 나운동 기업은행 사거리를 돌며 도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천호성 후보는 오전 11시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선거운동 유세단 발대식을 갖고, 전주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선다. 전주 유세를 마친 후에는 부안으로 이동해 부안 개소사에 참석, 거리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중한 권리 행사하세요

높을 **고** 고창

자	연	과	사	람	이
아	름	답	게	공	존
하	며				

노을이 아름다운 여기는, 고창입니다

노을공원, 신승희작_바다목장길